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운동 참여와 정치의식의 성장:
강정지킴이 체험과 생태, 평화, 여성의 가치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최혜영

2021년 02월

사회운동 참여와 정치의식의 성장: 강정지킴이 체험과 생태, 평화, 여성의 가치

지도교수 : 서 영 표

최 혜 영

본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최혜영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 성 만 ㉞

위 원 백 영 경 ㉞

위 원 서 영 표 ㉞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A Case Study of the Gangjeong Jikimi's
Experience concerning Meanings of Ecology,
Peace and Feminism

Hyea-yeong Choi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Pyo S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2020.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ungman Koh, Prof. of Sociology

Thesis director, Young-Gyung Paik, Prof. of SociologyX

Thesis director, Young-Pyo Seo, Prof. of Soci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참여한 강정지킴이들이 기지 준공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운동을 하고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들의 체험이 어떻게 정치적 의식까지 성장 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격 변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연대를 체험하게 되는 강정지킴이들의 의식 변화의 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강정지킴이들의 정체성 안에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공통의 정치적 관심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정 여성 병역거부 선언과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의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과 비인간 존재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듣는 생태주의의 관점도 강조 될 것이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주의,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강정지킴이의 다양한 활동들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적다. 강정에서 군사주의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위계화는 남성성과 국가주의의 결합으로, 그리고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안보 우선주의로 관철되었다.

여성 강정지킴이들은 ‘강정’이란 장소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남성성’의 폭력 앞에 파괴되는 자연과 사람, 공동체를 공격 받고 억압 받는 여성의 관점에서 체험했다.

페미니즘적인 관점은 강정의 투쟁을 반군사주의, 기지반대를 넘어서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각되었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되풀이 되고 빨갱이라 낙인 찍는 방식에 항의하며,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둘러싼 존재들을 재인식하려 했다. 이들의 체험은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이 페미니즘적이고 생태적인 평화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정지킴이의 활동은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이 지나간 강정의 삶과 투쟁이 결합된 시간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대한 군사

기지 바로 옆에서 강정지킴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선언하고 기록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강정지킴이,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군사주의, 생태주의, 에코페미니즘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문제	8
1) 이론적 자원	8
(1) 군사주의와 여성	8
(2) 군사주의와 생태	10
2) 연구문제	12

II.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서의 강정지킴이

1. 지킴이의 등장	14
1) 한국 사회 운동사에서 지킴이의 등장	14
2) 강정지킴이의 특징	15
2.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등장한 강정지킴이	17
1) 강정지킴이의 등장과 정착	18
2) 강정지킴이의 고립과 확장	21

Ⅲ. 강정지킴이 주요 활동과 변화

1. 지원과 연대 : 외부자에서 이주자로	23
2. 해군기지 완공 후 강정지킴이가 사는 법	26
1) 외부세력 낙인과 강정 주민권 박탈에도 불구하고	26
(1) 향약 개정	26
(2) 국제관함식 대응	28
(3) 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제주	33
2) 강정의 투쟁, 강정의 일상, 그리고 현재	34
(1) 강정 평화 활동의 일상적 토대	34
(2) 기지 건설 이후의 일상과 저항	36

IV. 강정지킴이의 정치의식 성장

1. 강정평화네트워크의 형성	39
2. 군사주의와 여성 : 여성병역거부선언	41
1) 평화 운동 속 여성의 자리	42
2) 기지 옆에서 저항하는 목소리들	43
3) 군사주의에 맞선 활동과 의식의 확장	45
3. 군사주의와 생태 :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	46
1) 강정 앞바다의 훼손	47
2)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48
3) 여성과 평화에서 생태주의로	50

V. 결론

53

【참고문헌】

5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강정마을은 제주 서귀포시 남쪽에 위치한 아름답고 작은 마을이다. ‘큰 내’를 뜻하는 강(江)과 ‘물 가’를 뜻하는 정(汀)을 써서 부를 만큼 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현재 서귀포 시민 70% 이상이 강정천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의 하천 대부분은 건천이지만 강정천은 일 년 내내 물이 흐른다. 다른 지역보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 벼농사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강정마을을 ‘제일강정’ ‘일강정(一江汀)’이라 불렀다(강정마을회, 1996: 23).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후보지에 올라온 적이 없던 마을이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화순’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미’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강정마을은 2007년 4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주민 1,050명 중 단 87명이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결정하게 된다(강정마을회, 2017: 33). 마을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던 해녀까지 동원하여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상지 결정전에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는 물론 입지타당성 검토나 사전환경성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 결정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2007년 5월 18일 ‘강정해군기지만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결성 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그해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찬반을 묻는 자체 주민투표에 725명이 참석했고 680명(총 유권자 중 96%에 해당)이 해군기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마을의 여론은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부, 해군과 제주도정은 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이 결정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만대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만대운동’은 주민들의 결사 투쟁과 강정지킴이들의 자발적 평화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평

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한 다양한 집단들을 아우른다. 여러 가지 입장과 투쟁의 의미, 다양한 저항 형태를 포함하는 반대운동이어서 한 가지의 정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반(反)기지운동이며 일방적인 국책사업과 비민주적인 절차에 저항한 투쟁이고 비인간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생명 평화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 중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의 특징은 첫째, 군사기지 건설에 맞선 평화운동이며 둘째, 지역주민과 외부 사람들이 연대한 운동이고, 셋째 기지준공 이후 현재까지 강정지킴이가 남아 있으며 이들이 현재 운동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논문의 초점은 강정지킴이에 맞춰질 것이다. 강정지킴이의 관점에서 해군기지반대운동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일부 통합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강정을 통해 어떻게 의식이 변화되고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지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정지킴이라는 말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정마을에 연대를 하러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맨 처음에 뭐라고 부를지 몰라 붙여진 이름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겨 살았지만 원주민과의 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불리었다. 강정지킴이는 강정마을에만 국한되어 살지 않고 제주 전역에 분포해 살고 있다. 현재까지 강정지킴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본 논문은 그럼에도 여전히 강정지킴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다.

필자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2009년 제주4·3기행으로 제주에 왔다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유치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정마을에 1박 2일 머무르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여러 주민들을 만났고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져 의견이 다른 형제·친척과는 원수가 되어 제사도 같이 지내지 않고 길을 가다가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는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한여름 차가운 강정천 물에 담근 수박을 얻어먹고 구럼비 바위를 가로지르며 이곳에 군사기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또 96%가 넘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제주4·3기행을 마치고 올라가서는 강정은 기억에서 잊혔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2011년도에 트위터(SNS)에서 강정마을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영화 ‘잼다큐 강정’을 보고 현장 영상들을 보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를 대하는 상황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었고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2월에 혼자 다시 강정마을을 방문하였다. 카약을 타고 구럼비에 갔다가 그곳에 머무르던 강정지킴이들과 알게 되었고 3월 초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누구라도 좀 와달라’는 트위터 글을 보고 무작정 강정마을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으로 가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공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순수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평일 낮에 제주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임용고시생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 사건을 강정마을 주민들과 연대자들과 함께 겪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강정마을에 갔다. 구럼비 발파 때 보고 겪은 일들이 일상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고 마을에서 싸우고 있는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소식을 외부로 많이 알려 제주도라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강정주민이 고립되거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마이크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정의 일상과 해군기지 준공의 부당함을 알리는 미디어팀을 차처했다. 그리고 2013년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겨 살다가 현재는 강정마을 옆 마을에서 살고 있다.

2016년 기지 준공을 앞두고 마을에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 강정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또 해군기지가 실제로 운용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무엇일지 강정에 살면서 알고 말하고 싶었다. 큰 고민 없이 남았고 매번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을에 남은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이렇게 필자처럼 다른 곳에서 살다가 강정마을로 혹은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을 ‘강정지킴이’ ‘강정 평화 활동가’ ‘강정앓이’ 등으로 불렀다. 강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불리어지는 이름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때도 있었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무뎠다. 그러다가 필자는 2017년 오키나와에서 군사기지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 활동가들을 만난 후 스스로 평화활동가라 인정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활동은 강정친구들 사무국장으로 또 알바와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으

로 해결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팀에서 다이버로 모니터링과 수중 사진을 찍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활동가이면서 독립 기획자로 전시를 기획하고 영화 프로듀서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내부자의 시선에서 강정지킴이를 중심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의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준공 이후 여전히 남아서 운동을 하고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어떻게 정치적 의식 성장에 기여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해군기지반대운동 특성상 강정지킴이들의 관심은 반군사주의, 생태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격 변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연대를 체험하게 되는 강정지킴이들의 의식 변화의 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강정지킴이들의 정체성 안에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공통의 정치적 관심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정여성병역거부선언과 강정 연산호 수중 모니터링의 사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더불어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과 비인간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 생태주의의 관점도 강조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강정연구와 강정지킴이를 언급한 연구를 살펴본다. 강정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2011년부터 강정에 관한 논문 외에도 다양한 출판물, 미디어들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해군기지의 절차적 부당성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보여줬다. 700년 넘게 살아온 마을을 빼앗긴 일부 주민들이 제주4·3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도 알게 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활사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연대 단체들과 강정지킴이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먼저 국가 중심의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논문들을 살펴보자. 조성윤(2011)은 노무현 대통령 때 선언된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그해 진행된 제주 군사기지 건설 추진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동안 제주도가 진행시켜 온 평화 관련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최현과 이정원(2012)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 및 인권 의식과 성장주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성장한 지역주민 및 참여자들의 평화주의, 환경주의, 민주주의의 인권 인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환경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가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킴을 밝히며 투쟁하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지지한다.¹⁾

다음은 지역주민의 대응 방식을 해석하며 그들의 의식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보라(2009)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바당’ 마을의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군사적 폭력과 평화의 개념이 해석되는 방식과 시각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며 주민들의 맥락에서 폭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었다.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되었다고 보았다.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폭력은 존재를 감출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주민 자신을 대상화하는 폭력으로서 주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주민들은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민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부정 혹은 극복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소속 양식과, 삶의 장소성(placeness)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이다(이보라, 2009: 113). 이보라는 연구를 통해 군사적 폭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평화라는 것 역시 주민들에게 내재(內在)된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발견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배운기(2012)는 로컬리티 연구에서 로컬-기반의 이해에 따른 전통적인 이해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와 이 차이를 분석한다.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기들 삶의 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타인들에 의한 기획과 일방적인 실행 앞에서 무기력한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

1) 이들의 체험과 의식 성장과정은 지킴이들의 그것과 겹치지만 서로 다른 궤적을 갖는다.

었다는 데서 문제를 제기한다. 아래로부터의 로컬화 혹은 자기 자리에서 말하기를 강조하며 주민들과 구럼비와의 관계를 근거로 주장한다(배운기, 2012: 348).

김민호(2014)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대를 통해 학습된 시민성을 분석했다. 밀양 할매와 강정 주민 및 활동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자신들을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배제되고, 남성 중심의 지배질서에서 소외된 ‘소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하면서 권력, 제도, 관행, 문화 등에 의한 차별(혹은 폭력)에 저항하는 ‘주체성’을 배웠다. 또 다른 소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연대’ 하는 자세를 학습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성지배적 질서 안에서 여성의 존재감을 ‘성찰’하게 되었다. 밀양 주민은 농사꾼으로서의 일상과 송전탑 반대운동 전도사로서 일상과 운동이 결합된 생활을 형성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밀양의 경험을 강정과 비교한다. 강정 주민들은 4·3의 기억을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서 폭력이 사라져야 함을 인식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넘어 강정을 평화마을로 만들어 가는 활동체계로 나가기 시작했다. 두 현장 모두 주민과 활동가들의 연대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로 인한 변화상도 이야기한다.

이봉석(2013)은 기독교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강정을 바라보고 김선필(2017)은 천주교회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교의 역할을 고민했다. 천주교회가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해온 과정은 어떠했는지, 천주교회가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반대운동을 통해 드러난 천주교회의 내부 갈등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해군기지가 이미 지어졌지만 10년 동안의 반대 운동에 대한 의의를 천주교회의 반대운동과 함께 밝히고 있다.

윤여일과 정영신은 사회운동으로서의 강정투쟁을 분석하며 투쟁공동체의 진화를 진단했다. 윤여일(2017)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강정향토지』, 『강정이야기』 라는 문헌들을 통해 마을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특히 활동가들이 편찬하는 마을신문인 『강정이야기』에 주목하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가운데서 강정마을에서는 새로운 공간과 활동이 생겨났고 상이한 논리와 가치들이 충돌하는 현상이 출현했다고 밝힌다. 정영신(2018)은 강정 해군기지 반

대운동을 ‘지역화된 사회운동’으로 규정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징적 커먼즈²⁾로서 구럼비³⁾의 이미지와 가치를 재소환하고 그 내러티브를 재생산하며 투쟁 공동체를 확장하고 지속시킨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럼비 밭파를 자연적 커먼즈의 상실로 분석하며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커먼즈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또 기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사회적 커머닝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하며 ‘커먼즈 없는 커머닝(commoning without commons)의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영신과 윤여일의 연구는 운동의 주체 중 하나인 ‘지킴이’가 등장하게 된 맥락과 배경을 짚어주고, 이들이 투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윤여일(2017)은 강정마을에 낯선 세대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커먼즈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윤여일, 2017: 101-102). 정영신(2018)은 강정마을의 투쟁공동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킴이’로 불리는 활동가들이 중요한 성원으로 등장하였고, 이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쟁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정영신, 2018: 168).

이들의 연구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즉 일정 기간 이상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며 함께 생활하는 존재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의 중요한 한 축인 강정지킴이의 등장과 이들의 일정 정도 역할 정도만을 이야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영신은 강정지킴이가 운동의 현장성에 의해 재구성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정영신, 2018: 167) 정작 본인 논문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강정지킴이가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2) 커먼즈(common)는 근대 이전부터 민중들이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함께 이용하고 함께 관리하던 다양한 자연자원(마을숲, 마을공동목장, 마을우물, 마을어장, 마을산 등)을 지칭하는데 현대사회에서도 마을광장, 마을거리, 마을도서관, 공동육아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 되고 있다(정영신, 2018: 168).

3) 해군기지가 들어선 자리에 있던 구럼비 바위는 강정해안을 따라 늘어선 폭 100m, 길이 1.2km의 통바위다. 제주에 흔한 현무암 바위와는 달리, 표면에 회색을 띠고 넓고 판판한 특징이 있다. 구럼비 바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놀이터였고 4:3 당시 몸을 숨겼던 피신처였다. 게다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뚝개와 층층고랭이를 포함한 180여종의 이름 없는 동식물의 서식지였다. 바위틈에는 ‘할망물’이라는 용천수 샘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정한수(정한수의 우리말은 정화수井華水로 치성을 드릴 때 사용한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럼비는 대를 물려 내려오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삶의 터전, 마을을 보살피던 안식처였다. (강정평화기행단, 2017: 35)

정치적 주체라면 운동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가는가를 살펴봐야 한다.⁴⁾

또한 앞의 연구들도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이 해군기지 준공(2016년 2월)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기존연구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이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실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령 2018년에 등장한 여성병역거부선언은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의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하였다. 여성병역거부선언의 주체와 논리를 살펴보려면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작동하고 있는 여성의 존재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정지킴이의 주요 주체인 여성이 저항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의 기지 감시 운동의 일환인 강정 연산호 수중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다. 논문이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을 페니미즘과 생태주의 맥락에서의 의제 설정과 관련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연구문제

1) 이론적 자원

(1) 군사주의와 여성

2000년까지 한국의 경우 여성 평화운동은 분단의 반(反)평화성에 집중하면서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등 다양한 차원의 전쟁 반대나 평화 지향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권인숙, 2005: 20). 한국과 같이 식민지 경험이 있고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큰 나라에서의 평화 유지 노력은 국가주의적 논리를 강화시켜 국민 정체성을 형

4) 따라서 본 논문은 운동의 성격 변화에 따른 강정지킴이의 재구성 양상을 밝혀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강정지킴이 내부에 다양과 결과 양식이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화, 남성적 가부장적 지배력의 강화, 여성적 역할의 낮은 가치 평가 혹은 비가시화를 낳는다. 즉 국가중심의 평화는 군사주의적 질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여성 억압 논리로서 한 사회나 국제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권인숙, 2005: .21).

젠더적 관점을 군사주의에 부여할 때 이런 한정된 군사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부장제의 지원을 받는 남녀 간의 역할 분업, 남성성/여성성의 구분,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의 성차별화 등이 군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기본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는 집단적 폭력을 가능케 하고 군대라는 조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여자다움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이런 집단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훈련과 단일적 위계질서, 역할 분업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신념적 장치 없이는 군대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신시아 인로, 2015: 128).

군사주의는 특정 유형의 남성성을 특권화 하는 동시에 여성을 제멋대로 선취하고 ‘여성성’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것을 경시한다(신시아 인로, 2015: 10) 복합적인 신념체계로서의 군사주의는 군대의 존재와 힘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에서 위계와 통제와 훈련이 핵심이라 믿고, 효율적인 병사 역할을 위해 필요한 남성성에 가치를 부여한다. 민족과 우방 등 대단위 집단의 이름하에 집단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런 특성들은 현대사회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제의 신념 체계에 의지하고 이의 특성을 지지하거나 강화한다. 마틴 쇼(Martin Shaw)는 “군사주의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군대 조직과 가치가 정당화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한편 군사화는 이념 또는 가치 체계로서의 군사주의의 일상화 사회화를 일컫는다. 군사주의는 이러한 가치와 이념들이 상징작용하면서 강화된다.

더불어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와 그와 수반되는 모든 것에 집적 저항하는 것이다. 군사주의적 사고는 군대의 담장 안에 머물지 않고 일상을 지배하는 군사적 세계를 형성한다. 그 세계에서 여성은 비하되고 무시된다. 여성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성 병역거부는 단순히 병역거부자의 ‘지지자’보다 더 큰 목

소리를 가지고 있다(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2018: 223-224).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주의,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강정지킴이의 다양한 활동들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적다. 강정에서 군사주의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위계화는 남성성과 국가주의의 결합으로, 그리고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는 안보 우선주의로 관철되었다. 강정지킴이들에게, 특히 여성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국가중심의 군사주의와의 맞닥뜨림은 기존의 체험으로 알고 있었던 성차별과 군사주의를 통해 강화된 모습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원초적인 페미니즘적 가치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반대가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생태 페미니즘의 가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2) 군사주의와 생태

새로운 사회 관심사는 새로운 지적 혹은 역사적인 질문을 탄생시킨다. 역사적 진술은 현재에서 생겨난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다. 페미니즘의 관점은 가부장적 사회,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억압되었거나 은폐되어 있던 것을 드러낸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적이고 생태학적인 의식은 16-17 세기에 걸쳐 근대 과학, 경제 세계가 형성되면서 발전한 - 오늘날의 주류 가치와 인식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관점을 폭로한다(캐롤린 머천트, 2020: 16). 페미니스트 호기심은 여성의 조건을 질문하고 여성 사이의 관계에 관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묻는 일이다. 가족, 남성, 회사, 운동, 제도, 이데올로기, 문화적 표현, 국가,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경향에 대해 여성이 맺는 관계를 당연시하지 않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질문하고 문제시하는 것이다(신시아 인로, 2015: 35-36).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페미니즘적으로 보는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자연과 사회에서 권력과 의미를 구성하는 가부장적인 시선을 비판한다. 생산과 소비를 재생산(reproduction)이라는 맥락에서 지금까지 분리된 것

으로 다루어졌던 것을 고발하고 생산과 재생산 같은 문제들을 연결 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태주의적 페미니즘은 세계를 조작하고 착취할 자원이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 볼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생산적이라 규정된 것 중 많은 것에 내재한 파괴성을 폭로함으로써 ‘생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창조활동의 인식과 경험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반다나 시바, 2020: 98).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에서 더 나아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 간단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젠더로서의 남성과 여성, 중심부와 주변부 등의 관계에 중점을 두던 페미니즘 논의에서 비인간생명체, 자연과의 관계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며 가부장제, 자본주의, 발전주의, 계급, 화폐경제 등 불평등을 유지시켜온 패러다임과 지배체제에 대한 전복이라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에코페미니즘은 기존의 ‘여성은 집과 부엌, 출산을 버리고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자본 중심의 발전과 개발의 흐름 속에서 젠더와 관계없이 임금노동에 매여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2020: 67-68).

여성 강정지킴이들은 ‘강정’이란 장소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남성성’의 폭력 앞에 파괴되는 자연과 사람, 공동체를 공격 받고 억압 받는 여성의 관점에서 체험했다. 페미니즘적인 관점은 강정의 투쟁을 반군사주의, 기지반대를 넘어서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각되었다. 이들은 군사기지가 지어진 펜스 앞에서 국가가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기지건설에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기지가 생기면 정말 안전해 지는가?’ ‘비인간들은 파괴되어도 되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되풀이 되고 빨갱이라 낙인 찍는 방식에 항의하며,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둘러싼 존재들을 재인식하려 했다. 강정의 체험은 페미니즘적이고 생태적인 평화운동으로 나가게 했다.

2) 연구문제

강정 투쟁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2011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강정에 왔고 주민들과 살며 함께 싸웠다. 이로 인해 해군기지반대 운동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정지킴이들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투쟁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운동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강정지킴이들의 활동은 구럼비 발파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강정에서 남아 활동하는 강정지킴이로 인해 강정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구럼비 바위를 지키겠다는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아니라 생태주의, 연산호, 쿼어, 여성, 군사주의 반대 운동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시간과 상황에 따른 강정지킴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면서도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지 준공 이후 진행된 강정여성병역거부선언과 기지 시민 감시의 하나인 강정 연산호 조사 사례를 그러한 의식 변화과정의 주요한 측면으로 위치 짓고자 한다. 그러기에 본 논문은 강정지킴이 중에서도 생태주의, 군사주의, 페미니즘의 결합을 통해 강정 활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사례들을 연구한 논문이다.

본 논문의 기초자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필자의 체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참여 관찰한 내용과 언론 기사, 논문과 문헌 연구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논문에 등장하는 강정지킴이의 이름은 마을에서 불리는 별명을 사용하였다. 본문에 등장하는 강정평화네트워크 회의록은 사용 허가를 받았다. 강정지킴이 몇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러 이유들로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선행 연구, 연구문제를 다룬다. 2장에서는 한국 사회 운동에 등장한 지킴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강정지킴이의 등장과 정착, 고립과 확장을 해군기지반대운동 시기와 더불어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외부자에서 이주자로 변화한 강정지킴이의 위치를 밝히고 기지가 준공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강정지킴이의 다양한 활동과 대응 방식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맥락들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강정 사례인 여성병역거부선언과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근거로 강정 운동의 지속과 확장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이야기 하고 본 논문의 의의에 대해 밝힌다.

II.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서의 강정지킴이

1. 지킴이의 등장

1) 한국 사회 운동사에서 지킴이의 등장

한국 사회 운동사에서 ‘지킴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일방적인 국책사업에 맞서 고립된 주민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부터 ‘지킴이’라 불렀다. 지킴이의 존재감이 처음 각인된 것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에서였다. 국방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인 대추리와 도두리의 철거 예정의 빈 집에 평화 및 인권운동가, 문예활동가 등 30여명이 빈집 생활에 들어갔다. ‘빈집에서 생활하면서 철거 저지운동을 벌이겠다’며 빈집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지킴이’라 불렀다.⁵⁾ 파괴의 속도를 빈 집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늦춰보겠다는 새로운 운동 방식의 시작이었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일상을 나누며 싸움을 이어간 ‘지킴이’들은 빈집을 수리하고 청소해 ‘거주’하는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다. 봉쇄된 마을로 사람들이 입주해 살자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 고립이 해제되고 이들의 합류에 평택 투쟁의 성격도 변했다. 주민들만의 싸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끌어들이는 ‘시민적’ 싸움으로 전환됐다. ‘기지 반대 투쟁’은 한국 사회 전체가 새롭게 고민해야 할 ‘평화적 생존권’ 문제였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복종 운동에 나선 시골 이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고 공무집행을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버스를 가로막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 확장 됐다.⁶⁾ 하지만 주민들은 ‘대추리’라는 이름을 부여받아 공동이주하게 되었고 이후 지킴이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지킴이라는 말은 주로 그곳 지명과 더해져 불리거나 지키고 싶은 것들이 붙는

5) 2006.08.23. 평택시민신문, “대추리지킴이 “빈집에 우리가 있다”인권·문예활동가들 빈집 거주하며 ‘철거저지’”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2> (검색일: 2020년 11월 17일)

6) 2017.06.12. 한겨레21,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가 사는 법”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681.html (검색일: 2020년 4월 2일)

다. 평택에서는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지킴이’를 줄여서 ‘평택지킴이’로, ‘두물머리 지킴이’로, ‘강정지킴이’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 소성리에서는 ‘평화지킴이’로 그곳에 들어가 살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다른 투쟁 현장에서 연대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지킴이’로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당대에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주체화 했는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킴이라는 표현은 연대 방식의 변화에 따른 호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운동과정에서 지킴이라는 그룹은 등장한 적이 없다. 스스로 지킴이라 주체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용산에서는 ‘연대하는 분들’이라 불렀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사람 역시 ‘연대하는 분들’ 이상으로 다른 표현은 찾기 어렵다. 밀양에서는 주로 단체 이름이나 개인 이름을 부르고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연대자’, ‘연대단체’라 불렀다.

이렇듯 ‘00지킴이’라고 함은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고, 농사일을 배우며, 국방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대추리와 도두리로, 강정으로, 소성리로 옮긴 것이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의 침탈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지난한 폭력들과 싸우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함축한다.

2) 강정지킴이의 특징

강정지킴이는 강정에서는 연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여전히 강정지킴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지킴이들 내부에서도 어떤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정영신, 2017: 166). 매번 강정지킴이는 누구를 말하는지, 나는 강정지킴이인지 등과 같은 질문들을 여러 차례 지킴이회의⁷⁾를 통해 해보았지만 쉽게 답이

7) 지킴이회의란 매주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강정평화센터에 모여 진행했던 회의를 말한다.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이기도 했다. 언제부터 시작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8년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도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활동 내용을 결정했다. 2019년부터는 격주로 진행하다 그것마저도 사라졌지만 2020년 3월 강정평화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난 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려지지 않았다. 강정지킴이라는 표상은 강정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가리키기도 하며, 지역에서 거주와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주민 되기를 실천하는 이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과 이주민의 경계 위에 선 이들이며, 동시에 경계를 교란하는 이들도(정영신, 2017: 167). 다양한 계기로 강정으로 왔고 각자가 다른 사회적 배경과 내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을에서 강정지킴이라는 공동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윤여일, 2018: 100).

이들의 독특한 특징은 첫째, 소위 ‘운동이 끝났다’고 대중이 이해하는 해군기지가 준공된 이후에도 새로운 모습의 평화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펍택 ‘황새울 지킴이’ 역시 그곳에 사는 식으로 싸웠고 현장에서 생활하다가 운동의 끝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런데 강정마을은 그 대목에서도 조금 달랐다. 해군기지가 준공된 이후에도 마을에 눌러 산 것이다(윤여일, 2018: 101). 오히려 떠나기는커녕 강정에서 지속되는 평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들의 등장은 강정마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제주 지역 이슈로 또 군사기지와 싸우는 사람들과의 연대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둘째, 군사기지 바로 옆에서 여성의 위치를 고민하고 비인간과 소수자들에 대한 생명 감수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화 하고 질문하는 것, 페미니스트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 질문들을 정치화하기도 한다(신시아 인로, 2015: 21-22). 이는 4장에서 이야기할 강정 여성 병역 거부선언과 연산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일에서 잘 드러난다.

셋째, 전장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전장이 된 강정마을에서는 활동과 일상의 경계가 흐릿하고 활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 동안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결합해온 20여 명의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오랜 시간 거주하며 대부분 예술과 정치적 실천 및 행동이 결합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를 강정의 아티비즘적 특성이라 보고 강정 아티비스트라 이름 붙여보았다. 아티비스트(artist)란 예술가(artist)이자 활동가(activist)를 합친 단어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연대, 활동,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10년 간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내부적으로 이 특수한 ‘예술+활동+노동’의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활동가이자 작가인 개개인이 하고 있는 예술작업과 강정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 사이 간극을 메꾸기 위한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투쟁 과정 속 대응 방식이나 강정지킴이의 활동을 통해 이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등장한 강정지킴이

정영신(2018)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반대운동을 3기로 구분했다. 1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해군기지 유치 및 반대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법투쟁이 일단락되는 시기로 보았다. 2기는 해군기지 건설사업 착공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준공된 2016년까지 시기로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로 구분했다. 3기는 해군기지가 완공된 2016년 초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로 기지 건설이후 다양한 투쟁을 모색하는 시기로 나누었다. 이 글에서는 정영신(2008)이 나눈 시기를 따라가되 3기는 해군기지가 준공된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기간을 확장한다. 그리고 강정지킴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시기부터 중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우선 첫째 시기(2007-2010)는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초기다. 2007년 4월 26일 마을총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같은 해 5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7월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이하 제주범대위)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가 연대를 시작한 때이다. 2009년 6월 김태환 도지사 소환운동을 진행했지만 무산되었고 2009년 말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였던 부지를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이 시기는 강정마을주민과 제주범대위가 제주도지사를 압박하고 제주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시기였지만 도지사 소환 운동 실패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1) 강정지킴이의 등장과 정착

강정지킴이가 출현하기 시작한 둘째 시기는 2011년부터 해군기지 준공이 있던 2016년도까지다. 2010년 12월 22일 다시 한 번 강정마을 주민들이 결사 항쟁으로 맞서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합세하며 반대운동의 열기가 치솟았던 시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정을 방문하고 강정마을의 생태적 가치를 알린 시기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생명평화결사⁸⁾, 천주교, 개신교⁹⁾ 등 종교인 혹은 종교집단의 방문과 후원이 이어지고 활동가¹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해군기지 공사 예정지인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카톨릭 미사를 집전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들의 방문은 장기적인 생활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강정지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구럼비로 가는 육로가 막히자 해상팀이 카약과 함께 등장했다.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구럼비까지 들어갔다. 사람들은 카약택시라고 불렀고 그때 강정지킴이들은 연대자들을 한 사람씩 카약에 태우고 구럼비 바위까지 데려다 주었다. 강정댄스가 만들어져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강정댄스’를 쳤다. 강정마을 사거리에 위치한 강정평화센터에서는 매일 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가 이어졌다. 강정마을주민들과 강정지킴이, 연대자들은 그곳에 모여 오늘 결합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연대발언과 공연을 통해 반대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정마을을 알게 됐고 많이 찾아오기도 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럼비 바위 본 발파 강행을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화면서 투쟁의 강도는 세지고 투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연대의 열기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2년 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대통령이 바뀌었고 24시간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

8) 2011.03.03. 한겨레, “생명평화결사 ‘강정에 힘 보탬 때’”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466371.html (검색일:2020년 11월 3일)

9) 2011.05.26. 연합뉴스, “개신교-천주교,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https://www.yna.co.kr/view/AKR20110526147400005> (검색일:2020년 11월 3일)

10) 활동가라는 정의를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거나 월급을 받는 곳은 없지만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끊임없이 그 이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여 칭한다.

었다.¹¹⁾ 이에 공사장 입구에서 공사차량을 막는 직접행동도 진행되었다. 동시에 용역의 폭력과 경찰의 고착과 불법 채증이 난무하던 때였다. 주민과 강정지킴이, 연대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을 죄목으로 한 사법적인 탄압이 자행되던 때였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위)’에서는 「24시간 공사장행 저지 행동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연대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정문봉쇄와 고착의 무한 반복은 이제 강정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정의 투쟁은 어느 누구의 투쟁도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저녁에도 주말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내어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의 24시간 투쟁 현장을 찾아주세요. 따뜻한 옷(더럽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옷)과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상상력만 필요합니다. 강정에서 뵙겠습니다. (2012.11.05.)

온라인으로 배포된 이 안내서에는 정문을 봉쇄하는 방식과 유의할 점, 직접 행동시 겪게 될 법적 문제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정문봉쇄와 경찰의 고착¹²⁾과 불법 채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강정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을에 와주기를 바랐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던 강정지킴이들이 조금씩 돌아가며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으로 모인 대부분의 강정지킴이들은 현장 투쟁 경험에 전무한 사람들이 많았다. 진술적인 측면에서 무지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들로 싸우기 시작했다. 기존의 조직적인 방식의 투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실천이었다. 경찰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다.

그중 하나가 ‘강정마약댄스’였다.¹³⁾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은 강정댄스였다. 강

11) 2011.11.1.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시체들' 있는 강정, 24시간 공사 시작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6192 (검색일:2020년 11월 3일)

12)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에 항의하던 활동가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착(固着)이 발생한다. 고착이란 많은 수의 경찰들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사지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것을 뜻한다.

정마약댄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한 번 추고 간 사람들은 그 음악과 춤이 계속 몸에 남아 다시 강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강정마을 댄스로 불리던 강정 3종 댄스는 공사 기간 중에는 기지 정문을 막는 행위이기도 했다. 원래 있던 노래에 가사를 바꿔가며 노래를 만들고 춤을 제작하였다. 강정 댄스 동작에는 반복성이 있고 모였다 흩어지며 서로를 잡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집단성을 가진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놀이로 인식하고 쉬이 맘을 열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기지 앞에서 춤을 춘다는 행위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여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찰과 용역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춤춰야 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정댄스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투쟁의 중요한 시간과 도구였다. 춤이라는 것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고 몸과 생명에 대한 감각을 일으킨다. 즐거운 흥이 반복되고 이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확장성이 있다.

이 기간은 직접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평화운동 방법들을 고민하던 시기였다. 초법적인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매일 공사장 정문 앞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공사장 입구에서 경찰들의 고착이 시작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손을 잡고 스크림을 짜고 공사장 정문 앞에 앉아 장갑을 낀 경찰들의 손으로 뜯겨지고 내팽겨치는 것이 일상이었다. 또 다시 옷을 추스르고 공사장 앞에 앉았다. 이 당시 겪은 강정지킴이들의 공동의 경험은 끈끈한 공동체성을 갖기도 하고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 쉬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계를 나누기도 했다.

또 2012년 여름 ‘강정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 일주일 동안 강정마을 혹은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제주의 일주도로를 걷는 행사가 시작되었다. 500여명 넘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걸으며 강정마을의 소식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여러 투쟁 현장(제2공항, 쌍용자동차¹⁴), 용산, 세월호, 밀양, 비정규직 등)의 소식을 나누는 평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는 지역적이고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부’와 융합 한 시기이다(정영신, 2018: 168).

해군기지 준공이 기정 사실이 되었음에도 강정지킴이들은 공사장 앞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는 일 뿐만 아니라 강정평화학교, 강정마을 안내 등의 프로그램

13) 강정댄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sNeya0SyQ4>

14) 쌍용자동차 대규모 해고사태를 의미하며 흔히 ‘쌍차’라고 줄여 사건과 해고노동자들을 불렀다.

램을 만들어 마을로 사람들을 초청했다. 또 마을에 ‘강정평화센터’를 중심으로 ‘강정평화책방’ ‘통물 도서관’ ‘할망물 식당’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선과장15) ‘마가지 협동조합16)’ 등 새로운 공간들이 생긴 시기이기도 하다.

강정지킴이는 서로 다른 경로와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강정에 왔지만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가며 이야기 하면서 지킴이로써의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 안에서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싸움에 기여하거나, 강정살이를 통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물리적 폭력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정에서 살면서 생활함으로써 투쟁의 다른 모습들을 이어나갔다. 즉 공통의 것 안에서 차이들이 찾아지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실천했다. 이러한 각자의 개성과 차이가 강정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새로운 이념적 공감을 찾아가게 되었다. 즉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향해 실천하고 이러한 이념적 공감대가 ‘강정 이후에 강정’에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강정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넘어 지킴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2) 강정지킴이의 고립과 확장

셋째 시기(2017-2020)는 해군기지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다. 2016년 2월 26일 해군기지는 준공되었고 같은 날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마을이 될 수 없다며 ‘생명평화문화마을’로 선포하였다.¹⁷⁾ 이때 해군은 반대운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34억 5000만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강정마을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해군기지 절대 반대’에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마을의 손해를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이름의 각종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다른 한편 2018년 국제관함식 저지 투쟁과

15) 2013.09.02. 제주도민일보, “강정의 평화 ‘협동조합’ 탄생으로 새 출발”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3>

16) 마가지 협동조합은 제주도 부동산 시세가 오른데다 방 구하기도 쉽지 않아 강정지킴이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평화의 집짓기를 하게 됐다. 2020.07.28. 한겨레, “강정지킴이들 ‘평화의 집 짓기’ 구슬땀”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48887.html)

17) 2016.02.26. 헤드라인제주, “강정주민들 생명평화마을 선포식..“해군기지 마을 거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109> (검색일 : 2020년 11월 4일)

2019년 강정지킴이 총회를 거쳐 2020년 ‘강정평화네트워크’를 조직한 시기이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부지가 결정되었던 투쟁 초기 운동의 구호는 ‘해군기지 결사 반대’ ‘구럼비를 지키자’ ‘돌맹이 하나, 꽃 한 송이도 건들지 마라¹⁸⁾’ ‘000를 석방하라’였다. 기지가 준공된 후에도 ‘해군 기지 폐쇄하라’ ‘우리가 구럼비다’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자’ 등으로 변화되어 그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구럼비를 지키자’는 구럼비 발파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구럼비가 발파된 이후에는 ‘우리는 구럼비다’로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다.

변화된 구호의 의미는 무엇일까. 해군기지 준공으로 구럼비 바위는 파괴되었지만 구럼비로 대표되는 수많은 자연과 또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강우일 주교의 설교에서 나온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평화가 시작되리라’와 외국 평화 활동가들에게 알리고자 한 ‘NO NAVAL BASE’ 구호가 있다. 작은 마을 사람들의 투쟁과 맞섬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해군기지 폐쇄하라’는 구호가 제주 도민들에게까지 공감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강정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 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운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은 수만 남아 그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아있는 강정지킴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강정지킴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8) ‘돌맹이 하나, 꽃 한송이도’는 김경훈 시인의 시집 제목이기도 하다.

Ⅲ. 강정지킴이의 주요 활동과 변화

1. 지원과 연대 : 외부자에서 이주자로

지킴이라는 존재는 시민운동의 ‘동원’ 국면에서 투쟁 공동체의 중요한 성원으로 등장한다(정영신, 2018: 166). 강정마을 주민들은 2011년 마을에 운동의 동력이 떨어졌을 때 외부에 있는 활동가들을 불러 모았다. 강정지킴이는 깨지는 구럼비 바위와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강정에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강정에 머물다 끝내 강정으로 돌아왔다.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겼는지 여부와 강정마을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은 강정지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강정지킴이는 각자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삶의 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강정지킴이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저마다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지킴이라는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개개인이 하는 활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주민과의 관계로 규정되기도 하고 또 강정에서 사는 것이 하나의 운동이자 투쟁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활동가로 동원되고 지원하는 방식인 연대활동으로 처음 강정마을을 접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이전에 새만금, 대추리, 평택, 쌍차, 밀양, 두물머리 등의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감성적 공감으로, 호기심으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대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강정마을이 겪는 부당함에 감성적으로 공감해서 강정에 오게 되었다. 강정지킴이 다수가 강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동체가 가진 묘한 힘에 매료됐다. 어떤 이는 이곳에 와서 살며 지킴이들과 ‘함께 있어보기’로 했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평화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에밀리는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 강정마을에 오게 되었다.

여기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으로 계속 소식 듣고, 친구들이 계속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친구들 만나러 온 거였는데, 와서 보니 계속 있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되었어요. 지난 여름 처음 강정에 왔을 때 구럼비에 많이 있었어요. 놀고 쉬고 친구들 만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잠깐 일이 있어 서울 올라간 사이에 갑자기 친구들이 잡혀가고 구속되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강정 내려간 날 펜스가 쳐졌어요. 울레 7코스 길에 펜스 칠 때 거기 있었는데,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제 친구들 경찰 조사 받고 재판 받는 거 다 봤어요. 이상해, 지금 강정, 너무 이상해요. 구럼비에 너무 다시 가고 싶고, 다시 갈 수 있다는 희망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땐 어떤 것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¹⁹⁾

잠깐 친구들 보러 왔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게 된 이유를 구럼비에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과 더불어 자신이 서울 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것이 이상했다고 말한다. 친구의 권유뿐만 아니라 직접 강정마을에 와보지는 못해도 SNS를 통해 보여 지는 강정마을 소식을 접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 강정에 온 경우도 많다.

김군이라 불리던 강정지킴이는 매일 아침 강정의 모습을 단체방에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활동을 시작했다.²⁰⁾ 묵묵하게 현장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김군의 꾸준한 기록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를 다루는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었다. 김군은 처음 여행으로 제주에 왔고 그땐 해군기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 구럼비가 발파될 즈음 강정마을에 들르게 됐고 그곳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정확한 증거도 없고 앞뒤가 안 맞아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찰 쪽 증언에 의해 여경을 때렸다는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법정 구속이 되었다.²¹⁾ 그때 김군의 나이 22살이었다. 김군과 함께 지내던

19) 2012.05.02. 일다, “[기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 에밀리 인터뷰“ <http://www.ildaro.com/6039> (검색일: 2020년 11월 5일)

20) 강정마을에서는 실명보다는 별명으로 사람들을 불렀다. 실명을 알면 경찰의 고발이 쉽기 때문이다. ‘김군’ 역시 강정지킴이의 한 이름이자 별명이다. 단체방은

21) 2013년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스물두 살 여성 김은

친구들은 구속된 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도소로 면회를 갔다. 매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하던 활동들을 잠시 접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김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호기심, 강정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강정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다. 반디는 출판 편집자였다. 처음에는 쉬러 제주에 왔다. 2013년 강정에 처음 주소를 옮겼을 때도 한 6개월이나 살까 생각했다고 한다. 반디가 머물렀던 곳은 ‘강정 순례자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렀다. 사람들이 오가는 집에 머물며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져 남기로 했다. 서울로 올라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강정으로 내려왔다. 반디는 마을의 이주민들한테 모으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한다. 마을의 여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마을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준다.²²⁾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고 매일 점심은 삼거리 할망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그리고 강정의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기 시작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강정에 오든지 간에 처음에는 강정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처음 만나면 ‘삼춘’이라고 불렀다. 강정삼춘들은 연대하러 온 사람들에게 굴도 주고 방금 잡은 소라도 까주고 회도 썰어 주었다. 사용하지 않은 집도 저렴한 년세에 빌려주며 강정에 살 수 있었다. 강정지킴이들이 오랜 시간동안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정 주민들도 지킴이라는 낯선 존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정 주민들과 생활적, 정서적으로 동화되고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찾아 갔으며 그렇게 낯선 이방인에서 이주자가 될 수 있었다.

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는 1년 전이었다. 김씨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진압할 때, 여경 7-8명에 의해 사지와 머리가 붙들려 땅바닥에 짓눌려졌다. 그 후 여경 1명이 '짓눌린 상태의 김씨에게 맞아 전치 12주 상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목격자 진술도 엇갈렸으나, 판사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22) 2017.06.12. 한겨레21,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가 사는 법”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681.html (검색일: 2020년 4월 2일)

2. 해군기지 완공 후 강정지킴이가 사는 법

1) 외부세력 낙인과 주민권 박탈

강정지킴이들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생각은 아니었다. 강정에서 경험했던 공권력의 부당함과 절차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군기지의 부당함과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에 분노하며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대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빨갱이’나 ‘전문 시위꾼’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여전히 미디어에서 들은 말 그대로 활동가들을 ‘외부 세력’ ‘전문 시위꾼’이라 칭하며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물리적 투쟁은 기지 완공 이후 마을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구상권 소송 철회 후 마을은 얼핏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10년 쌓인 앙금은 조금도 덜어진 것 없이 그대로다. 좁은 길, 얇은 벽 하나 끼고 사는 가까운 이웃들은 지금도 남보다 못한 사이다. 찬반으로 극렬히 대립했던 이들끼리 지금도 서로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길을 가다 마주쳐도 여전히 썩하기만 하다. 마을로 들어온 국가의 물밑 로비와 보상의 유혹, 오랜 충돌의 피로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주민들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다.

(1) 향약개정

갈라진 마을 공동체에 남겨진 지킴이들도 상처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새롭게 구성된 강정마을회는 임시총회에서 향약을 바꿔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긴 활동가들의 주민권을 박탈했다.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향약을 두 번 개정 됐다. <표1>은 필자가 강정마을회 향약의 변경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강정마을향약에서는 주민의 정의 및 자격은 아래 표와 같다(강정마을회, 2017: 819). 이전 향약에

서 주민의 자격은 거주한 기간과 상관없이 강정자연마을(악근천, 동해물, 선반길) 내에 강정마을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2015년에는 ②번 항목을 추가하며 거주 기간 5년의 조건을 달고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은 배제시켰다. 이는 1년 뒤 해군기지 완공 이후 당시 600가구나 되는 해군가족들이 강정 마을주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2장 제6조에 나온 주민의 권리는 ① 주민은 강정마을 소유 재산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강정마을회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시행 및 주민의 참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마을행사나 사업에 대한 참여도에 따라 권리행사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마을발전 유공주민에 대하여는 마을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만20세 이상 주민은 총회의 성원이 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동이익분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개정 전 (2015년)	개정 후 (2018년)
<p>① 본 향약에서의 주민이라 함은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본 향약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향약공동체에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을 말한다.</p> <p>② 강정마을 주민의 자격은 강정 자연마을 내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단, 강정자연마을 내에 전입한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은 주민이 될 수 없다.</p> <p>③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재석 운영위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p>	<p>① 본 향약에서의 주민이라 함은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본 향약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향약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②항 또는 ③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② 강정자연마을(악근천, 동해물, 선반길) 내에 최초 본적(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의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자녀</p> <p>③ 2007년 0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강정자연마을 (악근천, 동해물, 선반길) 내에 주소리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배우자 및 자녀</p> <p>④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재석 운영위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p>

<표 1> 강정마을 향약 제2장 주민 제5조(주민의 정의 및 자격)

제5조 주민의 정의 및 자격에서 2015년 ② 강정마을 주민의 자격은 강정 자연마을 내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단, 강정자연마을 내에 전입한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은 주민이 될 수 없다.에서 2018년에는 ② 강정자연마을(약근천, 동해물, 선반길_ 내에 최초 본적(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의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③ 2007년 0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강정 자연마을 (약근천, 동해물, 선반길)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배우자 및 자녀로 수정 및 추가 되었다.

하지만 2019년 1월 30일 강정마을 정기총회 때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그 내용과 목적은 이러하다. ‘마을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주민의 증가 등으로 향후 마을의 자치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공동체회복사업 등으로 인한 혜택 및 수익사업이 활발히 이뤄졌을 때 원주민들의 공동의 분배 또는 혜택 등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향약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운영위원회 및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다’고 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강정마을회, 2019). 강정마을을 주소로 둔 강정지킴이들은 향약상 강정주민으로 권리가 박탈되어 마을총회에 의결권도 선거권도 사라졌다. 이에 주민권을 박탈 당한 사람들은 SNS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마을회에 이의를 신청해 봤지만 무응답으로 돌아왔다. 이후 강정마을 주민이었던 강정지킴이 중 일부는 여전히 주민권 박탈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강정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강정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 국제관함식 대응

2018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상 사열 직후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강정 주민과 지킴이들을 비롯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주민들에게 건넨 첫마디가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 하고 왔는데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보도를 본 뒤 분노했다.²³⁾ 정작 야

단칠 사람들은 그 시각 간담회 장소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경찰들에 둘러싸여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전 마을회장들 역시 사과를 받기는커녕 대통령을 만나지 조차 못했다.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관함식 예산 36억의 명분은 ‘강정마을 갈등 치유’ ‘제주 지역 경제 도움’이었다. 2018년 3월 강정마을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이유는 대규모 국제 군사 퍼레이드라는 점과 해양 오염, 소음 등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마을 회의를 중용하여 갈등을 일으켰다. 경과일지를 살펴보면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청와대 비서진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관함식을 유치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마을을 방문했는지 알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국제관함식 유치 찬성과 반대 의견 갈등 속에 다시 총회를 열었다. 해군기지반대 대책위 회원들의 찬반투표 보이콧 속에 관함식 찬성 주민들은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동체 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조건으로 ‘국제관함식 유치 찬성’으로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²⁴⁾

관함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반대대책위나 강정지킴이가 아닌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다. ‘관함식 반대 강정 평화 활동 네트워크’는 국제관함식 찬반을 놓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주민 자격을 가진 강정지킴이들이 함께 회의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일로 만들어 지게 된 이름이다. 관함식 유치 찬성의견을 가진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회의 중에 오랫동안 강정마을에서 함께 산 활동가이자 제주 사람이었던 스에게 ‘그렇게 몸을 던져 싸우고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해군기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라’는 말을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사람들은 강정지킴이로도 강정마을 주민으로 남고 싶어 하지 않아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관함식 행사에 대응해야겠다는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관함식 반대 강정 평화 활동 네트워크’였다. 관함식을 계기로 오랫동안 마을에 살던 강정지킴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강정마을 주민 그리고 반대대책위와 갈라서게 된 것이다. 반

23) 2018.10.22. 한국경제, “문 대통령 “강정마을, 치유·화해 필요”…주민 사면복권 적극 검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262557> (검색일: 2020.11.23.)

24) 2018.07.28 제주의소리, “강정마을 국제관함식 주민투표, 찬성 385표 vs 반대 62표”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249> (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대대책위 주민들도 강정지킴이들에게 ‘너희들이 있어 찬성 주민들과 우리의 사이가 더 나빠진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관함식 반대 강정 평화 활동 네트워크’는 201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해군기지 입구와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고 관함식 반대 행동에 들어갔다. 연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기부 받아 관함식 반대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기지 주변에 내걸었다. 11일엔 이른 오전부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관함식 기간 중에 해상에서도 십여 대의 카약을 이용한 해상투쟁이 진행 됐다. 카약팀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완공된 뒤 미국의 핵잠수함 등 각국 군함이 자주 출몰하며 평화의 섬 제주가 군사기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열리는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를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로 부각시키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이유를 알렸다. 또 관함식 기간 부대 개방 행사로 제주해군기지를 구경 온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하는 제주도민들과 관광객 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관함식은 축제가 아닙니다. 군사기지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해군기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곳에 원래부터 해군기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가 있었던 곳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국가폭력에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강정주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무기를 잡게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바다에서 돌고래를 보게 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관함식 기간 중에 외국 군함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는 제주의 바다는 해군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저께 들어온 미 핵 항공모함은 2011년 후쿠시마 피폭 때 구조 활동을 한 배입니다. 4.3의 아픔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땅 제주에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은 과연 지속 될 수 있습니까. 축제를 가장해 입항한 미핵항공모함에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국제관함식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전문)

국제관함식의 문제를 제주도민들과 해군기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기지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행해지는 무기를 잡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들이 군사교육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죄책감을 심어주기 보다는 현 상황에 함께 동의하고 공명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전단지 배포했다. 이는 어린이날마다 해군이 어린이들을 해군기지 내부로 초청해 무기를 잡아보게 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데 있어 대응했던 경험에서 나온 행동이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과 관련된 경과일지

- 2018. 02. 26 강정마을회 : 해군본부 국제관함식 기획단 문서 수신
내용 : 국제관함식 행사계획 설명요청서
- 2018. 03. 11 전·현직 마을회장 및 제주해군기지 반대위원장 논의
- 기획단 설명회 듣고 논의하기로
- 2018. 03. 16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소장), 제주기지전대장 및 2명 강정마을회관에서 강정마을 운영위원, 갈등해소화합추진위원회에 국제관함식 행사계획 설명.
- 기획단장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제주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차원에서 반대하면 부산으로 가겠다고 말할.
- 2018. 03. 23 - 강정마을회 운영위원회 및 화합추진위원회 회의
- 국제관함식에 관한 마을회 입장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다.
- 2018. 03. 30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결정사항 - 강정마을회는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한다.
- 2018. 05 - 해군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며 마을 주민을 찾아다니며 회유하고 다님
- 2018. 07. 01 - 인터넷 신문 미디어제주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여부 7월 달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라는 기사 나옴.
- 2018. 07. 09 - 청와대 강정마을 첫 번째 방문.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과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이 강정마을 방문. 국

	제관함식에 관한 강정마을의 의견을 물음. 강정마을회에서는 3월 30일 임시총회 관함식반대 결의를 분명하게 전달함.
2018. 07. 11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1일 “해군은 강정마을총회 결정을 존중해 국제관함식 제주기지 개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2018. 07. 13	- <u>청와대 강정마을 두 번째 방문.</u>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 조경자 청와대 안보실 수석보좌관, 김관규 해군 참모차장, 최성모 제7기동전단장 등 6명의 해군과 강정마을회 전·현 마을회장과 집행부,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 전·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위원장 만남. 강정마을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강력하게 의사 전달함.
2018. 07. 17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43명 전원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에 서명함.
2018. 07. 17	-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국제관함식 유치 중단” 촉구함.
2018. 07. 18	- <u>청와대 강정마을 세 번째 방문.</u>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18일 오후 6시경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강정마을회의 전·현직 임원에게 이미 3월30일 마을임시 총회에서 의결한 결정을 놓고, “청와대는 총회나 토론회, 설명회 등 어떤 방식을 취하든 다시 한 번 마을이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론에 따르겠다”고 말함.
2018. 07. 19	- 김태석 의장은 19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와대의 적극적 의견개진 관계로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함.
2018. 07. 20	- 강정마을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마을의례회관에서 해군이 주관하는 ‘2018 국제관함식’ 제주 유치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 간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함.

<표 2>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과 관련된 경과일지

<표2>에 정리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과 관련된 경과일지」는 ‘관함식 반대 강정 평화 활동 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경과일지를 통해 청와대의 마을 방문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했으며 강정주민들에게 사과를 전제로 또 주민들을 찬반으로 이간질 하는 모습도 시간적으로 볼 수 있었다.

(3) 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해군기지가 제주에 있음으로써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2018년 국제관함식 기간에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 해 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강정마을회는 외국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거나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군함의 쓰레기 배출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제주도와 해군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²⁵⁾ 하지만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었다.

2018년 3월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²⁶⁾ 이는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강정해군기지만대대책위원회가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아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1부 기조발제를 맡은 한림대 이삼성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군사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의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상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윤여일, 엄문희, 신강협, 장하나의 토론발제가 이어지고 가속화 되고 있는 군사기지화 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실현

25) 2017.11.13. 헤드라인제주, “성난 강정 주민들, “미 핵잠수함 당장 제주 떠나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53> (검색일:2020년 11월 7일)

26)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은 참여연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566769

하기 위해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비핵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2017년 11월 22일 제주해군기지로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했고 제주는 핵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 해군기지의 존재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강정의 투쟁, 강정의 일상, 그리고 현재

(1) 강정 평화 활동의 일상적 토대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변변한 식당도 주변에 없어 강정마을 주민인 김종환은 구럼비 바위 위에 술을 걸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구럼비 바위 중에서도 할망물이라 불리던 곳에 있던 용천수에 물을 길어다 밥을 했기 때문에 ‘할망물식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구럼비에 있던 할망물식당은 2011년 9월 2일 구럼비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현재 있는 자리로 옮겨왔다. 지금 할망물식당이 있는 곳은 구럼비로 향하던 길목을 지키기 위해 망루를 세웠던 중덕 삼거리 ‘구럼비로 가던 길목’이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삼거리 식당으로 부르다가 현재는 다시 할망물식당으로 중첩해서 부르고 있다. 전국에서 보내주는 쌀, 김치, 농사 짓는 것들로 차려지는 공동 밥상이다. 중환삼촌이나 강정지킴이나 혹은 강정을 방문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라도 이 할망물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있다. 할망물식당 안에는 ‘밥먹고 힘내자’는 구호가 서각으로 세워져 있다. 함께 모여 밥을 지어 먹으며 일상의 시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은 강정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굴, 한라봉 등을 구입하면 그 수익금을 생명평화 마을만들기에 지원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생명평화의 마을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주도와 강정에 벌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국가폭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을 공동체를 지

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 10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²⁷⁾

강정마을국제팀은 2011년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모인 국내외 평화활동가 중 국제연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국제 활동가들과의 소통과 교류 창구 역할, 강정투쟁 소식을 해외로 전달하거나 국제평화운동 소식을 번역하여 전달한다. 강정국제팀은 2011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자신문을 발간하고 있다.²⁸⁾

강정평화학교는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상시적으로 열리는 배움의 장이다. 다양한 주제와 방법의 수업을 통해 평화 감수성을 개발하고 주체로서는 연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정평화학교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일 하는 백배, 인간띠잇기, 해상카약시위, 피켓팅 등을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제주4·3의 역사와 강정마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²⁹⁾ 강정지킴이와 강정평화학교 참가자들과의 만남은 국가폭력을 고발함과 동시에 평화를 상상하고 실천해 보는 경험의 장을 만들었다.

강정생명평화운동에 참여하고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강정친구들은 2012년 12월 22일 강정마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후원회원을 모았다. 매달 모이는 후원회비는 사무처장의 활동비와 강정마을대책위와 강정 평화활동가를 지원하는 일로 사용된다. 지킴이 지원금 지급 기준은 한 달을 기준으로 강정에서 20일 이상 활동(외부 활동 포함)이라 소개한다. 이들이 이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강정에 내가 함께 있다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받고 또 어떤 이는 통신비를 내고 또 어떤 이는 보험료를 내고 또 어떤 이는 먹고 마시는 일에 쓴다고 들을 뿐이다. 또 강정친구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제주시에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한다. 뉴스에도 신문에 실리지 않는 소식들을 매주 전하며 제주시 사람들에게 차로 한 시간 거리인 강정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2공항 소식을 동시에 전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27)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avejeju.net

28) 강정영자신문 Gangjeong Village Story을 볼 수 있는 사이트 <http://savejejunow.org/>

29) 강정평화학교는 강정마을과 제주도 곳곳에 위치한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인간과 자연에 행해지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 군사주의에 맞서는 저항행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Gjpeaceschool/>

(2) 기지건설 이후의 일상과 저항

혹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되었으니 모든 저항은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오전 7시면 생명평화 백배로 아침을 연다. 오전 11시엔 어김없이 가톨릭 미사가 집전되고, 미사 뒤에는 인간띠잇기와 강정마을 댄스 반주에 맞춰 내어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추며 기지까지 매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정생명평화백배는 구름비 바위에서 시작되어 현재도 매일 아침 7시에 진행되고 있다. 시작할 당시 생명평화결사팀에서 음원을 제작하였고, 현재까지 종교와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직접행동이다. 일상투쟁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벤트성으로 진행될 때도 있었다. 평소에는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매년 1월 1일에는 뗏부리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진행한다. 세계 평화라는 보편적이고 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방문객(연대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비폭력직접행동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특히 국외활동가들이 백배를 보며 놀라워하였다. 투쟁의 시기에 따라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일상투쟁을 이어가는 목적 등 다양하게 목적이 변화되어 왔다. 기본적으로는 참여자 개인에 따라 행위의 본질이 직접행동, 퍼포먼스, 종교 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등으로 다 다르며 이 다름이 같은 시간에 교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7년 5월 1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해군기지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로타리를 구름비광장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이 구름비광장에서는 매일 낮 12시 인간띠잇기를 진행한다(강정평화기행단, 2017: 48). 인간띠잇기는 2013년부터 시작한 오랜 비폭력 저항운동이자 일상투쟁의 하나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름비광장에서 30분 정도 작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회자가 인간띠잇기 소개 멘트를 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노래하거나 발언을 한다. 노래하고 춤추며 군사주의를 반대하고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행동이라고 소개한다.

이제부터 2013년 1월부터 해오고 있는 문화제인 인간띠잇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띠는 평화의 섬 제주에 폭력적으로 세워진 군사기지를 반대하고, 제주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노래와 춤으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또한 한국사회 곳곳에서 국가폭력을 경험하고 그에 맞서며 해결되지 못한 과거와 현재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기억하며 연대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으며 고통 받고 있는 무고한 이들에게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깃발을 들거나 함께 모여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게 다정한 모양으로 모여주세요.

(인간띠잇기 시작 멘트)

투쟁 3000일이 되던 날에는 기지 정문에서부터 강정 포구까지 사람들의 띠로 기지 주변을 가득 메워 버린 일도 있었다. ‘우리들이 잡고 있는 손에 힘’과 끈질김으로 해군기지가 무력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강정마을을 방문한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일상 투쟁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위 치상 해군기지 로타리 주변에서 매일 같은 시간 행해지기 때문에 시민들과 해군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나면 깃발을 들고 기지에 걸어갔다 오는 행진이 포함된다.

어느 날엔가는 우리들이 잡고 있는 손의 힘으로 뻥뻥하게 울리는 군가를 잡아 먹는 노래의 힘으로 이곳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부당한 해군기지 대신 구름비와 저 바다가 본래 있던 그 모습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온 세상 생명들이 평안히 살아갈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를 온 몸으로 표현하는 강정댄스를 추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띠잇기 종료 멘트)

또 강정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반군사운동, 평화운동 활동 뿐 아니라 예술 작업과 더불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도청앞천막촌³⁰⁾, 제주4·3 관련, 여성농민회 활동 등을 이어나갔다. 이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 뿐 아니라 제주 지역의 일원으로서 제주의 현재와 미래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기지 준공 이후에도 평화 문화 만들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오키나와, 대만, 하와이, 미국 등 군사기지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제주의 이해나 경계에 간혀 있지 않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국제 캠프³¹⁾로, 대행진에 온 국제 참가자들과의 교류³²⁾로, 오키나와 515행진에 합류³³⁾로, 강정 국제팀의 영자신문 발행³⁴⁾으로 나타난다.

강정지킴이는 강정 투쟁 초기 해군 기지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는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지키고, 제주의 풍경과 자연을 지키는 일들을 했다. 준공 이후 현재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국가폭력의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기억하고 일상과 활동이 분리되지 않게, 그래서 지킴이라는 것이 하나로 정의 내려 질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평화적인 문화를 일상에서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0) 제주도청앞 천막촌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고자 2018년 끝자락 제주도청 맞은편 길가에 천막을 치고 모여든 사라들의 기이한 마을이다. (2020.10.23. 프레시안, “저항의 선언들, 제주도청 앞 천막촌 700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102317225241667#0DKU>)

31) 2018.07.14. 제주환경일보,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캠프 25일 개최”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37>

32) 2014.07.29. 헤드라인제주, “강정평화대행진 대장정 시작...“해군기지 중단하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23>

33) 2015.06.15. 헤드라인제주, “오키나와 평화행진서 올려퍼진 '함성', 그리고 강정평화”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156>

34) 2011년 9월 첫 출간된 강정영자신문은 2012년 이후 강정 마을회의 재정이 탄압을 받으며 재정적 후원이 어렵게 되어 2018년까지 <강정친구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작하였다. 2019년부터 인쇄를 중단하는 대신 웹진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http://savejejunow.org/gangjeong-village-story-december-2018-january-2019-issue/>

IV. 강정지킴이의 정치의식 성장

해군기지 공사를 멈추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강정마을에는 형사벌금액 약 5억 원이 부과되었고 이미 국가의 모든 권력이 총 동원된 상황에서 697명이 연행되고 881명이 기소되었고 24명이 구속되었다.³⁵⁾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현 신부, 오두희와 함께 강정에 살고 있는 ‘평화바람’ 식구 딸기는 ‘나는 왜 강정에 있을까?’하고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강정에 있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나의 삶에 큰 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강정에서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투쟁에 참여”할 수 있고 지킴이라는 이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함이 논의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된다.³⁷⁾ 강정에서는 성별, 나이, 학력에 관계없이 공동의 활동을 하기에 동료로서 마주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 차이로 간직하지만 강정지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1. 강정평화네트워크의 형성

낮 12시 인간띠잇기가 끝나면 중턱 할망물 식당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는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안부도 묻고 중요한 논의도 오고간다. 또 함께 강정마을에서 태어난 강정지킴이의 아이를 돌보고 기른다. 해군기지만대운동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오랜 투쟁으로 상처 받고 떠나간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쌓아온 신뢰이기도 하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 사이의 분리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들만의

35) 딸기, 2019, 「진실이 드러나도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네」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44602>

36) 2019.05.29. 헤드라인제주, “[전문]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결정문”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921> (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37) 딸기, 2017, 「강정 포기하지 않는 마음」 <http://www.withoutwar.org/?p=13438>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킴이들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가 강정지킴이라 불렀던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강정평화네트워크’로의 전환이다. 이제 주민을 대변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020년 1월 3월에 있을 ‘구럼비 발파’ 행사 준비를 하면서 각자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라 불리기를 원하는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다. ‘구럼비회의’는 1차 2/10(월), 2차 3/ 9(월), 3차 3/ 28(토), 4차 4/13(월), 5차 5/1(금) 총 5차례 진행했고 강정평화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월례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강정에서 스스로의 위치가 문제였다. 변화하는 반대주민회와의 관계도 고민거리였다. 또 제주의 난개발로 인해 해군기지 이슈 뿐 아니라 제2공항, 비자림로, 송악산 등 연대해야 할 곳이 많아 졌다는 사실이 논의되었다. 한편으로는 강정 활동이 무엇인지, 강정지킴이라 불리는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했다. 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도 숙제로 남아있었다. 또 강정주민도 반대주민회도 아닌 개인으로서 온전히 강정활동에 대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터져 나왔다.

A : “우리 활동에 초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활동에 초점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전과 달라진 두 가지 지표가 있다. 하나는 해군 기지가 완공되면서 이전처럼 반대주민회와의 연결감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위치가 붕 뜬다. 선주민과의 관계가 단절된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의 난개발과 군사화의 지점에서 우리가 강정해군기지 반대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는 지점에 와있다. 그래서 제2공항에 가고, 비자림로에 가고, 송악산에 가고. 그런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그 두 지점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

B :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경험이 정리되지 않아 연대활동보다 별개의 또하나의 투쟁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C : “우리의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생명평화운동이 각자의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운동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려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치고 나가떨어질 것이다.”

D : “반대주민회와의 관계에서 주민회의 정체성을 떠나지 못하는 개인 활동가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하는 활동과 우리가 내는 목소리에 힘을 가질 수 있을까.”

(2020.03.09. 구럼비회의 회의록 중에서)

이런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 속에서 결성된 것이 ‘강정평화네트워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모호해지고 강정 주민들과의 일체감이 사라졌다. 해군기지반대 운동의 목적이 흐려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와해되었다. 지지할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깨졌다. 강정에 있는 맨 처음 이유는 해군기지를 막으려는 것이었는데 기지 준공과 더불어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도 강정에 있어야 할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안에서 평화를 비롯한 많은 의제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지킴이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되기는 어려웠다.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이 경계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강정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킴이들만의 공동체를 출현시켰다.

2. 군사주의와 여성 : 여성병역거부선언

투쟁 초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연대하는 한 사람이 아쉬울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응대와 고마움을 느낀다. 서로가 다름을 인식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투쟁이 고조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투쟁 방식 혹은 문화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성, 젠더 폭력, 국가폭력 등 다양한 폭력의 양태들이 드러나고 내적인 균열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 영역에서 다뤄지

고 여전히 대의를 위해 희생하게 된다. 투쟁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투쟁의 당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와의 합의를 이룬다. 그 과정에서 연대자, 지킴이들은 추방당하거나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함을 경험한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와해되거나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 그런데 강정에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다시 시작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전 현장과 다른 강정지킴이들의 독특한 점인 것이다.

1) 평화운동 속 여성의 자리

반군사주의, 평화운동에 있어 여성들이 처음부터 주체가 된 것은 아니었다.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밀양 할매가, 강제로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에 앞장서는 부녀회가, 또 제주에 지어지는 해군기지를 막겠다고 24시간을 공사장 정문에서 버티는 강정지킴이가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로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한 강정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동참하며 환경보전과 생명평화운동에 나선 이른바 ‘지킴이’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평화운동에서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는 폭력의 피해자들이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존재 방식이 더 중요하다.

투쟁 속에서 체험된 젠더 폭력은 지킴이 안에서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비남성 병역거부선언은 이러한 각성의 과정 중 하나였다. 병역거부 운동은 다른 사회 운동 보다 훨씬 더 이성애자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다(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2018: 9). 징병제가 사회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군사화 된 정도를 보여 주는 좋은 기준이다. 그리고 이 핵심적 제도와 경험이 뚜렷이 성차별화 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끼치는 징병제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이야기한다(권인숙, 2005: 210). 젠더화된 사회에서 비남성들이 병역거부자의 ‘지지자’ 혹은 ‘조력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병역거부선언을 한다는 것은 다음의 선언을 통해 잘 보여준다. 2018년 여름 서울 레드북스라는 책방에서 숲이아는 자신의 딸로 병역거부선언을 했다. 숲이아는 선언문을 통해서 성별이분법과 군대가 서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 따라서 군사적인 세계에 맞서기 위해 일상에서 강요되는 지정 성별을 거절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³⁸⁾

2) 기지 옆에서 저항하는 목소리들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세계와 남성화된 사회에 익숙해진 말들을 거절하고 편하고 쉬운 말들을 버리고 다른 말들을 모색하겠다는 숲이아의 선언은 강정활동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다음 해 5월 강정에 사는 최성희, 엄문희, 에밀리(왕유선)는 병역거부의 날을 맞아 병역거부선언문을 작성했다.

왜 병역거부인가? 왜 선언인가? 그것은 병역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유지와 재생산 체계에서 핵심적 기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거부 이슈는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슈이며 여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계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안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선언이란 공적인 형식은 공유를 전제로 한다. 선언의 배경과 목적이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환기시키고 호소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나의 선언은 이 사회를 향한 질문이다.

- 최성희 병역거부선언 중에서³⁹⁾

최성희는 “병역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유지와 재생산 체계에서 핵심적 기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병역거부 이슈는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슈이며, 여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계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선언의 의미를 밝힌다. 평화에 대한 외연의 확대나 전쟁을 가늠케 하는 일상성의 분석을 통해 평화의 중층적 의미를 확보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하게 한다(권인숙, 2005: 22). 여성이 전쟁 당사자, 병역 당사

38) 숲이아, 2018,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문』,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http://www.withoutwar.org/?p=14675> (검색일:2020년 9월 20일)

39) 최성희, 2019, 『왜 나는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가?』,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http://www.withoutwar.org/?p=15299> (검색일:2020년 10월 20일)

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전쟁과 폭력의 본질을 은폐하며 그동안 가부장 권력과 주류 전쟁 권력이 그간 여성을 착취하고 동원한 방식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또 여성병역거부선언은 이분법으로 나뉜 성별을 넘어선 국가와 시민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병역거부 행동을 통해 이분법으로 나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게 그리고 다른 다양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에게 모두 평등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이 구조를 거부합니다. “남자가 만든 전쟁에서 여자가 희생자가 된 이미지”로부터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울지마, 남자인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인간이 되지” 같은 말들은 많은 사람, 심지어 여성의 입에서도 나오는 흔한 말입니다. 이 작은 폭력을 전쟁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이분법으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전쟁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다양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부당하게 사회적인 역할과 기대를 강요하는 구조에서 그런 역할과 기대에 맞춰서 살아남기에 모두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인정을 하고 애통해하며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병역거부 선언을 통해서 전합니다.

- 에밀리(왕유센) 병역거부선언 중에서⁴⁰⁾

대만 출신으로 제주에 정착해서 사는 에밀리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시민’으로서 병역거부선언을 했다. 국가주의적 사고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국민’이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거절하고, ‘평화시민’으로의 부단한 ‘정체화’ 과정을 시도했다. 에밀리는 군사주의적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틀에 의해 유지되며, 군사주의가 스며든 일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아픔조차 제대로 인식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픔을 나누려

40) 왕유센, 2019, 『여성은 왜 병역을 거부하는가?』,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http://www.withoutwar.org/?p=15305> (검색일:2020년 10월 20일)

는 것이 곧 병역거부의 선언이자 그러한 선언의 실천이 된다.

또 에밀리는 “군사기지는 군인들이 단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단게 해야 하는 것이고, 군사기지 안에 서 있는 군인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말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총을 내려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 손에 실제로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폭력의 구조를 깨지 않은 이상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총을 들게 만든 사람 중의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거부 선언으로 무기를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이어갔다.

선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마음을 되짚어 보는 과정은, 사유와 현장 사이에 존재하기 마련인 불편한 간극이 구체적인 이야기와 사례들로 조금씩 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들 사이에서 국민/시민 혹은 지정 성별 등의 주어진 정체성을 넘어서는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된다(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2018: 157). 이들의 선언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 전쟁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것, 기지 밖에서 기지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것, 국경을 넘어서 평화를 말하겠다는 것, 젠더를 가시화하면서 젠더이분법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말한다.⁴¹⁾

3) 군사주의에 맞선 활동과 의식의 확장

비남성들의 병역거부 선언은 당연시되어온 성별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다양한 존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만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군사주의적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온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심아정, 2020: 156). 이들이 만들어낸 균열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남성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담론과 관행을 해체하고 드러낸 것이다. 젠더 이분법을 깨고 평화운동 속 비남성의 말하기는 익숙한 말하기 방식을 거절하고 ‘다른 다양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에게 모두 평등하지 않고 고통을 주

41) 나영정, <엄문희, 최성희, 왕유첸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 이 세계는 여성이 병역거부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 편이다>, 2019, 전쟁없는세상 <http://www.withoutwar.org/?p=15319>

는 이 구조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 강정활동가들이 전하는 이 선언 속에는 이미 지어진 기지를 기지 밖에서 봉쇄하고 기지에 조달되는 자원을 고립시키기 위해 그 조달체계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직접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기지에 맞서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활동가이자, 제주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선언을 한 사람들이다. 기지 옆에서 발화되어진 이 선언은 군사기지의 모순을 폭로하고 지속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가진다. 또 이 선언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3. 군사주의와 생태 :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체제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가 인간의 자연 지배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정지킴이의 활동은 반군사주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에코페미니즘으로 나아가게 된다. 군사기지를 짓기 위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를 파괴한 것을 체험한 이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폭력의 방식이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이었다고 폭로한다. 이러한 체험은 반군사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인 평화운동 안에서 생태페미니즘으로 확장하게 된다. 강정주민과 지킴이의 관계, 그 안에 젠더권력과 더불어 이중적으로 작동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혹은 침묵하면서 이루는 평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목소리를 냈다. 일상 속 성차별과 젠더권력을 부수기 위한 실천들이 군사기지를 부수기 위한 실천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인 해군기지만대운동 중에서 연산호를 기록함으로써 군사주의와 생태를 보여주는 사례인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 활동을 소개하려 한다.

1) 강정 앞바다의 훼손

연산호는 영어로 'soft coral' 즉 '부드러운 산호'로 부드러운 걸면과 유연한 줄 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충류는 무척추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았으며 부드러운 동물체로 수축·이완상태에 따라 크기 변화가 심하다. 연산호 군락지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⁴²⁾ 산호초의 면적은 지구 전체 바다면적의 0.1% 정도에 불과하지만, 모든 해양생물의 25% 이상이 서식처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보고된 산호류는 약 160종이다. 이 중 연산호류와 해양류 등을 포함하는 팔방산호무리가 약 89종, 말미잘류와 돌산호류를 포함하는 육방산호 무리가 약 71종이 있다. 제주도 해역에는 전체 산호 무리의 79% 정도인 126종의 산호가 분포하고 있다(제주연산호조사TFT, 2017: 9).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전국대책회의, 범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제주연산호TFT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입지가 확정될 당시부터 기지 예정지 주변의 산호충류 변화상을 기록하였다.⁴³⁾ 현재는 <강정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기지 감시와 꾸준한 기록으로 인한 내공과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이들은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군기지를 감시하고 제주도정과 문화재청, 환경부를 압박하는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 2007년과 2008년 녹색연합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정마을 평화활동가들 중에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합류하여 해군기지 해상 공사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2015년 8월 당시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폐사와 훼손을 고발할 수 있었다.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로 인한 연산호 변화상 비교 사진과 영상을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언론 발표하였다.

42) 문화재청,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제442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363904420000&pageNo=1_1_1_1

43) TFT란 TASK FORCE TEAM의 약어로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을 말한다.

2012년 3월 구림비 발파가 시작되었고, 그해 봄철부터 해상 공사가 시작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은 이 때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약1.5km에 이르는 서/남방파제, 500m에 이르는 동방파제는 조류의 흐름을 막았다. 또한 방파제 건설에 따른 케이슨 투하, 사석 유입 등은 지속적으로 부유물질을 발생시켰고, 강정 앞바다에 퇴적되었다. 현재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서 발생하는 연산호 군락의 죽음은 멈춘 조류와 공사 중 발생한 퇴적물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모니터링을 통해 같은 위치에서 기록된 축적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은 해군기지로 인한 변화를 드러내기에 충분함을 보여준다.

2)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⁴⁴⁾

필자가 강정 연산호 팀에 참여한 것은 2014년부터다. 강정등대와 서건도 부근의 아름답고 화려했던 강정의 연산호 군락은 이전부터 그곳을 기록해오던 팀들의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았다.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다이버로 함께 들어갔는데 이미 해군기지 준공 과정에서 망가져 버린 모습만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허무하고 이 관찰과 기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조하던 시간도 있었다. 사라질 혹은 사라진 것들을 보는 것만큼 힘이 빠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후 수중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서 해군기지 준공으로 망가진 연산호 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들을 찍기 시작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여전히 아름다운 연산호와 수중 생태를 찍으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미를 찾았다. 사라지고 망가진 것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 하면서 긴 투쟁의 시간들을 지나왔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항로(항로법선 교각30°) 추가 지정 고시를 추진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용역 조사,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국방부와 해수부 국비 예산 신청, 저수심 준설, 항로지정·고시에 따른 어업피해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30도 항로를 확보할

44)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이라는 제목은 필자가 2019서울사진축제에 리서처로 참여한 작품명이기도 하다.

계획이었다. 기존 77도 항로로는 안전성의 문제로 15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과 항공모함(CVN급)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애초 제주 해군기지는 대형 수송함은 물론 15만 톤급 크루즈선과 항공모함을 운항하기에는 불가능한 입지였다. 주민 갈등과 자주국방의 명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강정 주변해역은 4개의 법률과 유네스코에 의해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최근(2018년 11월과 2019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 신규 30도 항로를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는 저수심 ‘암초’ 지역이 국내외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집단 서식지임을 확인하였다.⁴⁵⁾

이 성과가 사진전시로 이어졌다. 2019서울사진축제 프로그램 <리서치 쇼>에 필자가 리서처로 참가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강정 연산호 조사 과정에서 찍은 연산호 사진이 전시 되었다. 해군기지 운용에 따른 연산호의 오염을 포착하고 고발한 꾸준한 기록의 성과이다. 당시 비자림로 공사에서 팔색조 ‘사진한 장’만 찾으려면 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대화에서 시작된 기획이었고 ‘사진’이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필자가 평화 활동가이자 예술가로서의 중첩된 정체성 사이에서 공적인 공간(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사진을 통한 강정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이라는 제법 거창한 제목을 단 이 사진들은 암초에 들러붙은 제주 서귀포 앞바다의 연산호 사진들이다. 최혜영이 직접 촬영한 이 사진들은 제주 해군기지의 새로운 항로 개설과 크루즈 준설을 막아냈다. 우리는 이 사진이 성취한 업적을 기리기 전에 연산호 사진 앞에 다시 설 필요가 있다. 이 여러기만 한 연산호 사진들이 감추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 사진의 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늘 거대하고 견고하다 믿어왔던 국가, 전쟁, 기지 따위의 단어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이상’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막아낸 팔색조 사진은 이 상황을 더욱 극화한다. 수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단숨에 900그루의 나무를 파헤치던 포크레인들이 작은 새 사진 한 장 앞에서 모두 작동을 멈추었다. 그것은 또 얼마나 ‘허술하고 이상’한 것이었나.⁴⁶⁾

45) 제주연산호조사TFT, 2019, 『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 언론 브리핑』

해군기지로 대표되는 국책사업 혹은 그 국가의 사업이라는 것이 의외의 곳에서 작동되지 않는 허술함을 사진을 통해 고발할 수 있었다. 다이빙을 하면서 연산호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시각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는 바다 속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며 대중들에게 쉬운 언어와 매체로 해군기지 운동을 접근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3) 여성과 평화에서 생태주의로

필자는 강정에서 여성 다이버로서 꾸준히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다이빙 장비를 입고 무거운 공기통을 메고 호흡기를 물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호흡하는 소리만 들리고 고요하다. 말하는 것, 걷는 것이 물속에서는 쉽지 않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체적 경험들은 물속에서 해체되고 오롯이 호흡기와 동료 다이버들과 수중 생물들에게 의지한 채 30분 정도를 유영한다. 매번 조금의 방심이 큰 실수로 이어지는 해상 활동에서는 긴장하고 동료들을 더 챙기게 된다. 2020년부터는 ‘강정 다이버스’팀을 만들어 강정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강정 지킴이들과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 기록을 나누고 다이빙 경험을 쌓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준공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오염과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과 기록이 중요한 시기다. 해군기지 준공 이후 여전히 해군기지 운용을 감시하고 주변 생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민들이 있다. 꾸준히 연산호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경험과 축적된 자료들이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단이 가진 역량과 자원이다. 그동안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보도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국제연대 등을 통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생명·평화의 운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46) 홍진현,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 2019서울사진축제-리서치쇼, p.242-243

기지가 들어온/들어올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확장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현에서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듀공의 먹이 활동지이자 산호 군락지인 헤노코 앞바다가 파괴될 위험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전체 미군기지 중 70% 이상이 집중하여 주둔해 있는 곳이다. 기지를 이전하면서 듀공이 먹이활동을 하러 오는 해초 군락지 등을 매립하여 공군기지를 위한 활주로도 건설하게 된다. 매립 과정에서 생태계의 파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활주로 완성 후 이착륙 훈련 등이 진행된다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헤노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과도 연대한다. 2017년에는 오키나와 헤노코 앞바다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정의 연산호와 헤노코의 생태에 대해 교류하고 기록들을 살펴보고 대응 방식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여전히 서로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강정의 дай버들은 개발과 국가 안보라는 논리와 폭력적인 흐름 앞에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없는 생명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준다. 그들은 강정 바다 속 연산호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기록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해군기지 방파제가 만들어 지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산호 군락지가 폐사 되었는지, 천연기념물 해송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해군기지 옆에 크루즈항을 짓겠다던 그 항로 밑은 얼마나 아름다운 연산호들이 살고 있는 장소들인지와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이들은 남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바다 속에서 연산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속한 바다와 삶을 가꾸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강정지킴이들은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체제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가 인간의 자연 지배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생태계를 되살리는 것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일임을 확인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것 또한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형성해온 폭력적인 경제를 넘어서서, 여성과 지구를 존중하는 비폭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행보를 포함해야 한다(반다나 시바, 2020: 19). 강정지킴이의 활동은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이 지나간 강정의 삶과 투쟁이 결합된 시간들 속에서 성장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대한 군사기지 바로 옆에서 강정지킴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끊임없이 선언하고 기록하며 저항하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10년 넘게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함께 한 강정지킴이들을 투쟁의 당사자로 소개하고 이들이 강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또 확장되는지 살펴보았다. 강정지킴이들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를 거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며 해군기지반대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군기지가 이미 지어졌지만 그 옆에서 살며 저항하기 위해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삶으로써 보여주었다.

연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반대 운동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다양한 형태로 그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기지 준공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것이 운동의 끝이라 보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강정지킴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여전히 참여함으로써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주거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강정지킴이는 다른 투쟁 현장과 마찬가지로 주민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합했지만 기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마을에 남아 그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것이 강정지킴이의 독특함이다. 투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위치성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가지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강정평화네트워크 결성으로 드러났으며 해군기지 투쟁 뿐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 내에 여러 다양한 난개발 이슈와 소수자 인권 이슈에 결합하고 있다.

강정지킴이는 강정 투쟁 초기 해군 기지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는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지키고, 제주의 풍경과 자연을 지키는 일들을 했다. 준공 이후 현재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국가폭력의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기억하고 일상과 활동이 분리되지 않게, 그래서 지킴이라는 것이 하나로 정의 내려 질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평화적인 문화를 일상에서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강정 여성 활동가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함으로써 남성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병역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상기시켰다. 선언은 전쟁에 이용당하지 않겠다, 전쟁을 공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동시에 해군기지가 전쟁에 이용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해군기지 옆에서 기지 반대 운동을 하며 국경을 넘어서 평화를 말하고 젠더를 가시화하면서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 시민들의 기지 감시인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이라는 수중 기록은 꾸준한 기록의 중요함과 말하지 못하는 비인간 존재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드러내는 기지 준공 이후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매김 했다.

‘나는 왜 아직도 강정에 남아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스스로 물으며 시작한 본 논문은 강정지킴이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강정마을에서 함께 살고 싸우고 지내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장의 시간과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강정지킴이를 호명한 것은 이들의 삶과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분석되고 이야기되어야 할 것도 여전히 많다. 강정지킴이 외에도 오늘도 길 위에서 싸우고 분열을 내고 선언함으로써 군사주의, 가부장제, 국가주의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마을회, 1996, 『강정향토지』
- _____, 2018, 『제주해군기지반대 및 생명평화운동 :중간자료집 I (2007년~2017년)』
- 강정마을회 엮음, 2012, 『눈물 속에서 자라난 평화: 4·3 아픔 딛고 생명평화마을 된 강정 이야기』, 단비
- 강정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18,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 강정이야기 발행위원회, 2015~2020, 『강정이야기』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2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강정평화기행단, 2017, 『안녕, 강정』, 리슨투더시티
-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2019,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심사결과』
- 구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 2011,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나름북스
- 권인숙, 2017, 『대한민국은 군대다』, 맥스미디어
- 김민호, 2014,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시민성 학습 : 밀양 송전탑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례” 평생교육학연구, 20(4), pp.1-30
- 김선필, 2017, “천주교회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2007~2017) - 종교사회학적 관점” 『종교문화연구』 29
- 김애령, 2020, 『듣기의 윤리』, 봄날의박씨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 녹색연합, 2007, 『제주 해양 생태 연구 042 043 보고서 -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 덕진, 2014, “강정 24시”, 『문화과학』 77, pp.185-196
- 도미야마 이치로, 2002, 『전장의 기억』, 도서출판 이산

- 배윤기, 2012,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43
- 북멘토 편집부, 2013, 『그대, 강정 - 작가, 제주와 연애하다』, 북멘토
- 서영표, 2014,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 대중영합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연구협동조합 데모스 급진 민주+사회주의 연구분과 토론회 《진보정치:지역운동과 정당 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 _____, 2015, “저항적 연대와 사회변혁 - ‘적대 없는’ 연대에서 ‘적대를 통한’ 연대로” 『로컬리티 인문학』 2015-01 (14):123-161
- 신시아 인로, 2015,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김엘리 외 옮김, 바다출판사
- 신시아 코번, 2009, 『여성, 총 앞에 서다』, 삼인
- 심아정, 2020, 「‘국민화’의 폭력을 거절하는 마음」 『난민, 난민화 되는 삶』, 갈무리
- R. W. 코넬, 2013, 『남성성/들』, 안상욱 외 옮김, 이매진
- 이주빈(글), 노순택(사진), 2011, 『구림비의 노래를 들어라 -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는 평화유배자들』, 오마이북
- 임정빈, 2012,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4)
- 윤여일, 2017,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 커먼즈에서 커머닝으로” 『EC0』 21(1)
- _____, 2018,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주 비핵조례 -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탐라문화』 0(59), pp.69-102
- 오카 마리, 2016,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 이보라, 2009,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봉석, 2013, “다시 보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기독교 평화주의”, 『기독교사회윤리』 0(25), pp.91-120
- 이정원, 2011, “지역언론의 담론 및 생산구조 분석- 제주지역 신문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설을 중심으로”

- 장훈교, 2016, 『밀양전쟁』, 나뭇잎스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2018,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경계
- 정영신, 2018,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동” 『탐라 문화』, 0(58), pp.149-183
- 정육식, 2012,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서해문집
- 정현주, 2006, “사회운동의 공간성 :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2006-01 41(4):470-490
- 제주연산호조사TFT, 2017, 『강정앞바다, 연산호훼손실태보고서』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편집), 허윤, 손희정(기획), 김영희 외 12인(글) 지음, 2017, 『그런 남자는 없다』, 오월의봄
- 인더씨코리아, 2018, 『저서무척추동물 분야 :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 조성윤, 2011,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 『제주도연구』 Vol. 35 (201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9,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산호 분포 조사 통합 보고서』
- 참여연대, 2012,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참여연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17호
- 최현·이정원, 2012, “이명박 정부와 제주 해군기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2년 하반기(통권 22호)

【Abstract】

A Case Study of the Gangjeong Jikimi's Experience concerning Meanings of Ecology, Peace and Feminism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angjeong Jikimi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activism against the Jeju Naval Base and remains still there, and even after the base had been completed did not give up their lives and activism. This fact shows that how this experience has made their political awareness transformed.

As movement against the Jeju Naval Base the Gangjeong Jikimi experienced the change of their consciousness or identity, and through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 they experimented diverse forms of actions and solidarity. Through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change of their consciousness, one can see how, despite their different positions, they come to have a common political interest. In this context, the cases of Gangjeong women's declar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duty and Gangjeong underwater coral monitoring will be considered in particular. Additionally, women's resistance to militarism, and ecological efforts to record and listen to the voices of non-human beings will also be significantly dealt with.

The uniqueness of the opposition campaign to the Jeju Naval Base and the interests of the Gangjeong Jikimi could be categorized as an political action inspired by anti-militarism, ecology, and feminism. Various actions of Gangjeong Jikimi are currently still developing, and its direction of change is toward resistance focusing on the break of the vicious cycle of violence. This aspect is, though, yet to be analysed. Militarism had been expressed in a strong form. The dominant idea of prioritizing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criticized as the combination of hierarchy, masculinity, and militarism and as the way of forcing sacrifice of the minority for the whole.

Women in Gangjeong Jikimi learned how 'femininity' is reconstructed by their particular position in Gangjeong. They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nature as well as humans by 'masculine' violence, which made them see the attack on community from the women's standpoint as one of the oppresse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y learned that they must see beyond anti-militarism and anti-military base campaign and go to pacifism. They reached to the consciousness that the peace they aspire must include non-humans beyond humans. They questioned the current authoritarian way of protecting citizens, because this type of political position justify state violence, demonizing its critics as comunists and other forms of its enemy. Only when over-coming this anthropocentrism idea, we can see other beings surrounding us, humas, and, finally break with anthropocentrism. Their experience of the struggle against Jeju Naval Base was an opportunity to extend their peace activism into feminism and ecology.

It might be said that the activism of the Gangjeong Jikimi is not well-planned but we can see the growth of political consciousness through their diverse actions and experiences grounded in the lived-experiences of common life and struggle in Gangjeong. Right beside the massive Naval base, the Gangjeong Jikimi do not stop saying their voices and resisting all kinds of militarism, masculine authoritarianism and ecological degradation.

Keywords: Gangjeong Jikimi, Jeju Naval Base resistance, militarism, ecology, eco-feminism